

10년 노력, 금광지구 행복주택 결실

군산시-전북개발 업무협약... 오룡동 고지대 도시재생 연계형 3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10년 묵은 채증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군산시의 전복개발공사가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구역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의 행복주택에 대한 남다른 소감은 10여년 전부터 고지대 불량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주장해온 노력의 결과물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추진되는 30년 공공임대 행복주택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금광지구 정비사업으로 13년만에 금광지구 내 오룡동 10,904㎡ 부지에 국비 60억원 포함 총 198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130

세대 주택이 건립된다.

금광지구정비사업은 지난 2004년 국토해양부 예비사업 대상지구로 확정하고 2005년 투융자 심사, 2006년 기초조사와 정비계획안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평소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박 의장은 2008년 제128회 임시회에서 시장질문을 통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예산확충을 요구했으며 공원과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대책에 대해 기초수급대상자 주민들을 위해 33㎡(10평)이상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군산시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10년 제144회 임시회와 145

회 정례회에서도 시장질문을 통해 중단된 금광지구정비사업으로 문짝하나 고치지 못하고 사는 달동네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시달리고 있다며 재차 재해위험지구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 복지지원의 임대주택 건설로 저소득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협의를 하는 등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금광지구 주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이에 군산시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현지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2014년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을 떠난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했다.

이를 토대로 불량주거지역 추가 개발을 위해 전복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지난 2월 행복주택 국가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행복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해 도시재생 연계형 30년 공공임대주택 건립·공급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번에 협정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젊은 세대 및 취약·노인 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에 향상시키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현 기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원광대, ‘원탑 대동제’ 23일-25일 개최

원광대학교 축제 한마당인 ‘2017 원탑 대동제’가 23일부터 25일까지 주 무대인 소운동장과 학생회관 새세대 광장을 비롯한 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뜻을 가진 ‘화양연화’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23일 저녁 개막식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공연과 난장을 비롯해 봉황배 축구대회 시상식, 우리 쌀로 만든 떡 나눔 행사, 학교 사업단 별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총동아리연합회에서는 지난 15일 성년의 날을 맞이한 98년 생 학우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하며, 봉황가요제 본선과 함께 미화원 및 경비원 어르신들을 위한 보은행사도 마련됐다.

한편, 총학생회는 올해도 청소년규제로 쾌척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행사장 주변 차량통제로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축제기간 별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군산시, 관광안내도 새로 설치

군산시는 알기 쉽게 코스를 설명해주는 관광안내도를 설치했다.

설치한 관광안내도는 대표관광지, 고군산군도, 시간여행마을, 구불길, 대표먹거리 등을 테마로 한 여행 코스와 함께 시의 역사·문화자원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총 52개소의 관광안내도를 이달 말까지 일괄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관광지 안내도에는 3개국 언어(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내용을 표기하여 시를 찾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관광지를 찾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원광대-GTV, 사회맞춤형학과 공동운영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와 GTV가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도중 총장과 송문규 LINC+사업단장, 하용운 GTV 대표이사, 사와 GMTV 문성환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원광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력해 사회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공동양성에 뜻을 모았으며,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으로 참여하고, 사회수요를 반영한 참여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채용이 이어지는 사회맞춤형학과 과정을 공동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학교와 GTV가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급수취약지 물 복지 지원 집중

열악한 시설환경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충분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농촌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군산시가 물 복지 실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물 복지 지원 대상자를 조사했으며 지난해까지 접수된 1,820세대의 신청자 중 800세대에 대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가뭄과 수질오염 등 관리가 어려운 공공관리 지하수를 상수도 대체하는 등의 지원을 완료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물

복지 지원사업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농촌지역 특성상 나홀로 주택 등에 대해선 경제성을 감안해 지원한도를 정해 운영된다.

또한 지하수 고갈, 수질저하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마을 또는 세대의 경우도 배수관 및 계량기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이 없는 주말주택, 기존 대지가 아닌 토지의 신축주택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군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진 무허가 축사 추진 모범 사례에 대한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익산군산축협의 협조를 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 오수용 팀장을 초청해 선진 무허가 축사 추진 모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오 팀장은 군산시청 공무원, 익산군산축협, 축종별단체장 그리고 군산시 건축사협의회 소속 건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추진과정을 사례별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계기로 적법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개시

오늘부터 익산시내까지 버스 4대 하루 8회 운행...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기대

익산시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운행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통근버스는 익산시내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를 4대의 버스가 출·퇴근, 야간 포함해 하루 총8회를 운행한다.

익산제3일반산업단지는 시내권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망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그간 기업체에서는 차량임대, 자가용 등으로 이를 해결해 왔지만 기업비용 부담 가중과 안정적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017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분야에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운행사업’을 응모하고, 지난 3월말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준비기간을 거쳐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됐다. 총 사업비는 1억3,200만원(국비1억1,900만원, 시비1,300만원)이다.

시는 사업이 시행단계이고 기업들마다 기존 출·퇴근 운영방식이 달라 시행 초기 탑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6월까지를 조정기간으로 정

했다. 통근버스 이용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선·시간 등 기업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실효성 있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고용안정 및 경영활동 지원과 불편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 산업 활력 기업도시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기면 연동리와 낭산면 구평리 일대에 위치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는 국내복귀기업 등 40여개 기업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제2기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출범

군산시는 24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지난 2015년 5월 제1기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40명에 대해 제2기 위원으로 재위촉하고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제2기로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어린이행복도시조성과 관련

된 계획과 정책에 대한 제안, 심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계기로 ▲어린이행복예산서 심의 ▲2018년 신규사업 발굴 ▲올부즈퍼슨(어린이대변인) 등 본격적인 활동은 물론 위원들이 어린이, 학부모 대상 강연 등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관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